

오피니언

월/요/광/장

정준모



지구상의 어느 국가에도 현대미술에 호기심 이상의 호의를 가진 국민은 10%를 넘지 않는다.

했으나 최근에는 30만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문화적 욕구는 높아지는데 관객은 줄어드는 것일까.

주인 없는 비엔날레의 비애(?)

비엔날레를 찾으면서 늘 느끼는 소감이다. 직업상 국내는 물론 해외의 비엔날레까지 가급적 모두 섭렵해야 하는 탓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비엔날레라는 미술행사의 불친절함이다.

따라서 주인 아닌 주인들의 경우 비엔날레의 관객동원과 수지에 대한 관심은 처음부터 형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의 광주나 부산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관객들과 함께 하기 위해 '참여관객'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레토릭 차원에서 그치고 말았다.

이제는 광주비엔날레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자, 즉 자기 돈을 내지 않는 탓에 성과에 처열하지 않다.

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소속원들은 어느 누구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고보조와 시비 지원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영기업체 또는 단체의 사장과 임직원들이 임기 동안 안만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최근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주인 없음 때문이다. 분명해야 할 광주비엔날레의 성격과 개념은 대

능력있는 그래서 책임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했고 책임을 지워야 했던 것이다.

이제는 광주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이다. 기백 역원에 이르는 재단 기본자산을 증식시켜 다음 비엔날레 행사비로 쓰기 위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고민을 하는지. 또 그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결정은 누가 하는지 등의 문화와는 별개의 경영, 즉 문화경영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거나 부서는 광주 비엔날레 조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 미술의 중심으로 세계미술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10년을 넘기면서 새롭게 자기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위협받을 것은 분명할 일이다.

이제라도 구리의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가 자기갱신을 통한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자 상징으로, 그리고 말로만의 문화수도도 아닌 문화수도의 실질적인 추진동력으로서의 광주비엔날레로 거듭나기 위해 광주와 호남인들은 물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인을 찾아주는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미술행정·미술지평>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적자' 광주시 공기업 성과급 인상이라니

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공기업들이 적자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이 광주시 4개 지방공사의 성과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해 25억 8천144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임원성과급 452만원, 직원성과급 3천415만원을 지급했다.

일이다. 적자 상태에서 성과급 인상이 말이나 되겠는가. 문제가 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기업의 투명·효율경영을 강조했는데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에 대해 감사 등을 통해 부실·방만경영을 적발해왔지만 사후조치는 '숯방망이에' 그쳤다. 부실한 대처가 방만경영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때마침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방만·부실경영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 적발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회수와 구조조정 등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교육계 미리 체결 더 이상 '구두선' 안돼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1일 교육계의 부조리와 부패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총·교장 회의에 참석해 "최근에 발생한 학교 납품비리와 관련해 행정실장 2명이 구속되고 교장, 납품업자 등 15명이 출중이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이기에 "초등교육계의 금품 상납과 수수 관행은 갈 데까지 갔다"는 글을 올리며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부패 수장이 공개적으로 교육 현장의 부조리 척결을 강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 교육계의 부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정직하고 강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해되고 있는 지 의아할 정도다. 문제는 이 같은 부조리가 어제오늘의 일이고, 광주시 교육계만의 현상이겠느냐는 점이다.

우리는 교육계의 비리가 극히 일부 교직원들의 행태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온 광주시 교육청의 부조리 사례는 그게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계의 도덕 불감증을 치유하고 교직윤리를 확립할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비리차단 노력과 수사당국의 엄단 의지가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비리 척결 없이 교육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無等鼓

복싱처럼 인간의 야성에 걸맞는 스포츠도 없다. 사각의 링에서 벌어지는 일대일의 싸움에 열광하는 것은 자연과

와지마 고이치를 KO로 물리치고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국민들의 열광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국 복싱사 최대 미스터리인 주인공이기도 하다.

챔피언 유제두



의 야만적 성격에 가깝다. 우리나라에 근대 복싱이 도입된 것은 1912년. 그러나 복싱이 온 국민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것은 1960, 70년대다.

'코치가 1억엔에 매수됐다' '일본인들이 약물을 탔다' 등이었다. 그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0년만에 입을 열었다. 김대중 이전 호남 출신 거물 정치인과의 가까웠던 유제두의 승리를 막기 위해 권력기관 중앙정보부가 약물을 탔

1966년 김기수가 뱀베누트를 물리치고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에 오르면서 한국 첫 세계챔피언이 되었다. 이후 홍순환, 유제두, 박찬희가 차례로 챔피언에 오르면서 프로 복싱 황금기인 70년대를 열었다.

그중에서도 전남 고흥 출신인 유제두는 송곳 같은 스트레이트로 당대 최고 인기를 구사했다. 그가 1975년 일본인 조하고 싶었다. 현재 시장에 가보면 수많은 한우 브랜드가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임선숙



이용훈 대법원장 광주 발언이 언론에 공표된 며칠 뒤였다. 광주변호사회에서 변호사회 공보 이사로서 변호사들을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니다. "원고 청구는 이유없으니 기각해달라는 것입니다"로 30초를 채웠다. 이렇듯 법원이나 당사자나 사전 준비 없이 강행된 구술주의는 여러 해프닝을 낳았고,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 가기에 크게 미흡했다.

법원개혁 '겸손한 노력' 필요한 때다

이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변호사회가 사과를 요구하자, 일부 언론과 판사들은 마치 대법원장의 개혁에 대해 발 걸기라도 하는 것 변호사회를 몰아갔다.

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회는 인적 총원과 시설의 확충을 강조했던 것이다. 재판관 제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구술주의 재판도입은 국민이나 변호사가 피해를 볼 일이 없다.

버스 출구 전자감지센서 노인들 걸음속도에 맞춰야

얼마 전 어머니와 구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정류장에서 어머니가 내리는 과정에서 차 문이 닫혔고 출발하려고 했다.

모든 시내버스가 제조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된다고 한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모두 젊은 이들은 아니다. 나이 든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몸이 불편하거나 빨리 움직이기 힘든 시민들도 많다.

기고

이승연



어느 금융 공기업 회장의 연봉이 12억원,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평균 연봉이 6천만~9천만원이라는 어느 일간지 사실을 보면서 말문이 막혀 할 말을 잃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내국세 대비 19.4%가 고작인 현실에서 최소한 5% 이상 인상으로 7조원 적자운영의 교육 재정 확보에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늘려야 한다

그런데 수심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어 금융공기업을 회생시킨 우리 나라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매년 재정적자로 부도 직전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부모들이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녀 때문에 가장 고생하는 학부모일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미국산 쇠고기 대적할 한우브랜드 특화시켜야

미국산 쇠고기가 10월부터 들어오면 광주·전남지역 축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애당초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중단 됐던 이유는 광우병 때문이었으므로 검역을 철저하게 해서 안전한 쇠고기만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하고 싶다. 현재 시장에 가보면 수많은 한우 브랜드가 있다. 하지만 공략할 대상, 공략 지역들이 불분명하다. 즉 최상위 소득계층인지, 중산층인지, 어느 지역에 판매할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